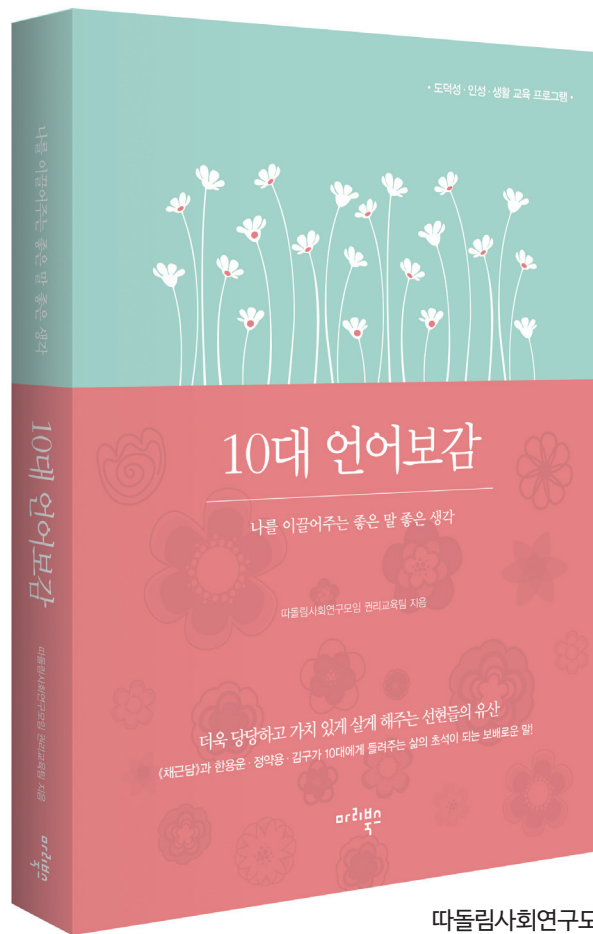


# 10대 언어보감

## 독후활동지



따돌림사회연구모임 권리교육팀 지음

분야: 청소년 문학, 인문

대상: 청소년

#인성 #인정욕망 #욕설 #화 #뒷담화 #분노 #화행 #생활수행

잔소리 같은 지극히 당연한 말들이 왜 당연한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로 들려주는 10대들을 위한 수행서

요즘은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른들이 이런 말들을 하면 “왜 그래야 하는데요?”라고 반문하는 10대들이 많다고 한다. 그 친구들의 심리에는 그런 말들이 ‘고리타분하다. 나아가서는 끈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서일 것이다. 이 책은 그 잔소리 같은 당연한 말들이 왜 당연한지, 당연한 이야기로 들려주는 10대들을 위한 수행서이다. 이 말들을 듣다 보면 처음에는 흘려들을 수도 있지만, 계속 듣다 보면 머릿속에 남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수행의 단계로 나아가기도 한다. 이것이 그 당연한 말들이라 칭하는 진리, 사람의 도리가 가지는 힘들이다.

<p>‘보감’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리해 봅시다.</p>	
<p>‘보감’의 뜻에 비추어 볼 때, ‘언어보감’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 것 같나요?</p>	
<p>책을 통해 ‘나를 이끌어’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p>	

### 활용 가이드

- 각 장 단위로 내용을 읽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밑줄 치며 반복해서 읽습니다.
- 각 말씀마다 자신만의 해석을 담아 봅시다.  
내가 겪었던 일을 예로 들어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듯이 정리해도 좋습니다.  
혹은 책에 나온 내용을 읽은 후, 그 내용을 정리해도 좋습니다.
- 책에 담겨 있는 한문 인용은 생략했습니다. 자세한 한문을 알고 싶다면 책을 참고해 주세요.

★ [15~19쪽] 입은 곧  이니 엄밀하게 지키지 않으면 . 생각은 곧 마음의 발이니 엄격하게 지키지 않으면 그릇된 길로 달려간다.

《채근담》

Q. 위 구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 내 생각을 담아 해석해 봅시다.

---



---

Q. 다음의 속담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 입과 곳간은 닫아 두어야 한다. • 입 싸움이 주먹 싸움 된다. • 한 치의 혀로 사람을 살린다.

---



---

Q. 청소년들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욕을 섞어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나요?

---



---

※149쪽을 읽고 더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드러난다.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물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책 149쪽 中

Q. 이 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욕을 섞어 가며 대화를 하는 것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생각해 봅시다.

---



---

Q. 자신의 언어 습관 중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

① 욕설 사용 ② 어려운 말 사용 ③ 말을 빨리 하는 것 ④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 ⑤ 비난, 조롱하는 것 ⑥ 기타

Q. 부족한 언어 습관을 고치기 위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

★ [32~37쪽] 인생을 오로지  마소처럼 남의 고삐에 매여 지내고 매나 개처럼 남의 채찍이나 받으며 살게 된다.  천지도 나를 흔들지 못하고 귀신도 나를 부리지 못하는데 하물며 모든 사소한 사물이야 오죽하겠는가.

《채근담》

Q. 위 구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 내 생각을 담아 해석해 봅시다.

---

---

Q. 욕망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봅시다.

---

---

Q. 욕망은 나쁜 것일까요? 욕망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나눠 봅시다.

---

---

Q. 욕망이 과했을 때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책의 내용을 찾아봅시다.

---

---

※52~56쪽에 있는 다음의 시를 읽고 더 생각해 봅시다.

〈만족〉

한용운

세상에 만족이 있느냐, 인생에서 만족이 있느냐  
있다면 나에게도 있으리라.

세상에 만족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 앞에만 있다.

거리는 사람의 팔 길이와 같고, 속력은 사람의 걸음과 비례가 된다.

만족은 잡으려야 잡을 수도 없고, 버리려야 버릴 수도 없다.

만족은 얻고 보면 얻은 것은 불만족이요, 만족은 의연히 앞에 있다.

만족은 우자나 성자의 주관적 소유가 아니면, 약자의 기대뿐이다.

만족은 언제나 인생과 수적 평행이다.

Q. 한용운의 <만족>에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

---

Q. 내 안의 가장 큰 욕망은 무엇이고, 그것은 실현 가능한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

---

Q. 한용운은 인생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무모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단단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한 나만의 방법을 찾아봅시다.

---

---

★ [38~43쪽] 얼굴 좋은 것이  만 못하고, 몸 좋은 것이  만 못하다.  
김구, 《백범일지》

Q. 위 구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 내 생각을 담아 해석해 봅시다.

---

---

Q.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을 꿈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 다음을 읽고 생각해 봅시다.



###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 마더 테레사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수녀 '마더 테레사'는 평생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삶을 살아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평온한 수녀원에서의 삶을 벗어던지고 인도의 가장 가난한 마을로 자진하여 향했던 그녀는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녀의 희생적 삶에 감동한 사람들이 거액의 기부금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녀는 그 전부를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노벨 평화상으로 받게 된 상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아 있는 성녀로 불린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며 기억되고 있습니다.

Q. 마더 테레사의 삶이 아름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

Q. 나는 어떤 아름다움을 꿈꾸는지 떠올려 나만의 '아름다움'을 정의해 봅시다.

---

---

Q.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방법들을 생각해 봅시다.

---

---

★ [46~51쪽] 하늘이 나에게 복을 적게 준다면 나는 나의  을 많이 쌓아 이를 막을 것이고, 하늘이 내 몸을 수고롭게 한다면 나는 나의  을 편하게 하여 이를 보충할 것이며, 하늘이 내 처지를 어렵게 한다면 나는 나의  를 형통하게 해서 그 길을 열 것이니 하늘인들 나를 어찌할 수 있겠는가.

《채근담》

Q. 위 구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 내 생각을 담아 해석해 봅시다.

※아래는 ‘덕’의 사전적 의미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p>① 도덕적·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덕이 높다.</li> <li>• 덕을 갖추다.</li> </ul> <p>②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덕을 베푼다.</li> <li>• 그들은 입을 모아 황제의 덕을 칭송하고 만세를 빌었다. 《이문열, 황제를 위하여》</li> </ul>	<p>③ 베푼어 준 은혜나 도움. =덕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네 덕에 일이 잘되었네.</li> <li>• 누나 덕에 내가 호강한다.</li> <li>• 나는 부모님을 잘 둔 덕에 별 어려움 없이 자랐다.</li> </ul> <p>④ 착한 일을 하여 쌓은 업적과 어진 덕. =공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덕을 쌓다.</li> </ul>
---	---

Q. 책에서 말하고 있는 ‘덕’의 의미는 몇 번이라고 생각하는지 고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정리해 봅시다.

※ 다음 기사를 살펴본 뒤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에게 배우는 선행  
(출처: 채널 A 뉴스)

Q. 아이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Q. 내가, 또는 주변 사람들 중에서 ‘덕을 쌓았다’고 생각되는 일을 떠올려 이야기해 봅시다.

Q.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덕을 쌓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 [61~65쪽] 아버이는 자식을  하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하며 형은 아우를 감싸고 아우는 형을  함이 지극한 경지에 이르더라도 당연히 여기고 털끝만큼도 감격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베푸는 자가 스스로 덕이 있다고 여기고 받는 자가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이는 길 가는 사람들의 일이요 길거리의 도일 뿐이다. 《채근담》

Q. 위 구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 내 생각을 담아 해석해 봅시다.

Q. 도리란 무엇인지 책을 참고하여 적어 봅시다.

Q.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도리는 무엇이 있나요?

자식으로서의 도리	
학생으로서의 도리	
친구로서의 도리	

Q. 도리를 행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 다음 동영상을 시청한 뒤 생각해 봅시다.



리어나카 끄는 ‘폐지 노인’ 우산 씌워 드리고 용돈까지... “해야 할 일 했을 뿐”

출처 : 유튜브 <연합뉴스 TV>

Q. 여성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말은 바로 ‘도리를 행했다’는 말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근담》에서 는 도리를 행하는 일은 당연한 일로 여기고 감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 여성의 모습에 감동하고 그녀의 행동을 칭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66~70쪽] 학이 닭의 무리 사이에 있으면 뛰어난에서 상대할 자가 없겠지만 한 걸음 나아가  와 비교해 보면 지극히 작다. 더 나아가  은 너무 높아서 따라갈 수가 없다. 따라서 도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언제나  를 취하고 비어 있는 것처럼 살며 덕이 많더라도  . 《채근담》

Q. 위 구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 내 생각을 담아 해석해 봅시다.

Q. ‘닭의 무리 속에 있는 한 마리의 학’이라는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Q. 이 구절에서는 ‘닭 > 학 > 봉새 > 봉황’의 순서로 더 크고 높은 존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새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에 이런 표현을 한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Q. 뛰어난 능력을 가졌더라도 자랑하지 않으며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Q. 《채근담》에서는 어딘가에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을 테니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갖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90~94쪽을 읽고 더 생각해 봅시다.

Q. 《채근담》에서 말하는 사람을 대하는 네 가지 원칙을 찾아 적어봅시다.

1.  2.

3.  4.

Q. 《채근담》에서는 ‘자기 힘을 믿고 깎죽거리지 말며, 남의 유능함을 시기하지 마라’는 말로 겸손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던 순간을 떠올려 나의 모습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 [77~82쪽] 남의  말고, 남의  말며, 남의 지난날의  마라. 이 세 가지는 가히 그로써 덕을 기르고 또한 가히 그로써 재앙을 멀리할 수 있느니라. 《채근담》

Q. 위 구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 내 생각을 담아 해석해 봅시다.

---

Q. 비판과 비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Q. 친구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있나요?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

Q. 내가 한 말은 비판이었을까요, 아니면 비난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71~75쪽을 읽고 더 생각해 봅시다.

생각이 너그럽고 두터운 사람은 봄바람이 만물을 따뜻하게 키움과 같이 모든 것이 그를 만나서 살아난다.

-《채근담》

Q. 친구를 대함에 있어 봄바람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

Q. 나에게 봄바람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에게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요?

---

---

Q. 누군가에게 봄바람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나요? 따뜻한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

---

★ [95~99쪽] 일을 할 때마다 으로 한다면 하늘도 나를 시기하지 않고  
귀신도 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는 일이  안에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으면 밖에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다.

《채근담》

Q. 위 구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 내 생각을 담아 해석해 봅시다.

---

---

Q. 내가 목표를 갖고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

---

Q. 바라는 목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

---

Q.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한다면 어떤 일이든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를 담아 스스로를 응원하는 메시  
지를 적어 봅시다.

---

---

---

---

---

---

---

---

---

---

★ [103~108쪽] 어떤 사람에 대해 나쁜 평판을 듣더라도 . 남을 헐뜯는 자를 위한 분풀이가 될까 두렵다. 어떤 사람에 대해 좋은 평판을 듣더라도 . 간사한 자를 출세하도록 이끌어 줄까 두렵다. 《채근담》

Q. 위 구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 내 생각을 담아 해석해 봅시다.

Q.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 보세요.

<보기> 선입견, 평판, 정보, 경계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사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이런저런 을 듣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 를 바탕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을 갖습니다. 하지만 선입견은 실제와 다른 경우도 많기에 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가), (나)를 읽고 생각해 봅시다.

(가) 어제까지 친근하게 어울리던 친구들(A)이 오늘 갑자기 정색을 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해 보면 평소 나를 깔끄럽게 여겼던 한 친구(B)가 다른 친구들(A)에게 나에게 대한 근거 없는 악담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B)의 말을 들은 다른 친구들(A)은 내게 배신감을 느끼고 그 친구와 함께 나를 따돌립니다.

-책 106쪽 中

(나) 뜻을 굽혀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보다는 자신을 곧게 지켜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게 낫다. 선행을 하지 않고 남의 칭찬을 받기보다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도 사람들의 헐뜯음을 받는 게 낫다.

-《채근담》, 책 154쪽 中

Q. (나)를 참고하여 (가) 상황의 A, B는 각각 어떤 잘못을 한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Q. 따돌림을 당한 사람이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

---

---

---

※128~132쪽을 읽고 더 생각해 봅시다.

사람을 헐뜯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헐뜯음을 당한 사람은 한 번 당할 때마다 한 번 더 자신을 낮추어서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키워야 하고, 사람을 속이는 것은 복 받을 일이 아니지만 속은 사람은 속을 때마다 한 번 더 자신의 도량을 키워 화를 복으로 만들어야 한다.

-《채근담》

Q. 누군가에게 험담을 들어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나요?

---

---

---

Q. 위 구절을 통해 나의 모습을 되돌아봅시다.

- 나의 부족한 점은 없었나요?
- 나를 더 발전시킨 점은 무엇인가요?

---

---

---

---

---

---

---

---

★ [109~114쪽] 사람을 사귈 때는 나중에 가서 쉽게 멀어지는 것보다  않은 것이 낫다. 일을 할 때는 나중에 가서 힘들게 지켜내기보다는 서툴더라도 . 《채근담》

Q. 위 구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 내 생각을 담아 해석해 봅시다.

Q. 나는 친구를 사귈 때 어떤 편인가요? 나는 친구를 사귈 때 (쉽게 친해진다. / 쉽게 친해지지 못한다.)

Q. 친구를 사귀는 나의 모습에서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Q.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나요? 그 친구와 친해졌던 계기를 떠올려 보고 왜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게 됐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다음을 읽고 생각해 봅시다.

“네가 친구를 원한다면 나를 길들여 줘.”  
“너를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인내심을 가져야 돼. 먼저 약간 멀리 떨어진 곳에 앉아 있어. 내가 너를 볼게. 말은 하지 마. 말은 오해를 낳으니까. 매일매일 네가 나한테 조금씩 가까이 오는 거야. 매일 같은 시간에 오면 더 좋지. 예를 들어 네가 오후 4시에 오기로 한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어린 왕자》

Q. 《어린 왕자》에서 서로가 친해지기 위해 제안한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Q. 《채근담》에서는 사람을 사귈 때 서툴더라도 신중하게 다가가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처음 친구를 사귈 때 어떤 방법으로 다가가는 것이 신중한 태도일까요?

※134~139쪽을 읽고 더 생각해 봅시다.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뜻이 맞기도 어렵지만 갈라서기도 어렵다. 남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은 친해지기 쉽지만 헤어지는 것도 쉽다. 그러므로 군자는 차라리 깐깐한 태도 때문에 남들에게 꺼림을 받을지언정 아부하는 태도로 마구 용납해서는 안 된다.

-《채근담》

Q. 《채근담》에서 쉽게 친해지는 사람은 쉽게 헤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 봅시다.

Q. 어떤 무리 속에 들어가기 위해 내가 했던 행동이 있나요? 그때의 행동을 현재 관점으로 평가해 봅시다.

Q. 혼자일까 두려운 마음이 드나요? 만약 마음에 맞는 친구가 없을 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 [115~119쪽]  은 현명한 것이 아니다. 따져야 할 때는 잘 따지고 따지지 말아야 할 때는 따지지 않을 수 있어야 이를  이라고 한다. 언제나 이기는 것이  . 이겨야 할 때 이길 줄도 알고 굳이 이기지 않아도 될 때 이기지 않을 수 있어야 이를  라고 한다.

《채근담》

Q. 위 구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 내 생각을 담아 해석해 봅시다.

---

---

Q. 친구와 싸워서 이기거나 진 적이 있나요? 나도 이기고 상대방도 이기려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

---

Q. 책을 참고하여 《손자병법》에서 전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찾아보세요.

---

---

Q. 《채근담》에서는 따져야 할 때와 따지지 말아야 할 때를 잘 판단해야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겪었던 일 중에 따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일을 떠올려 그때의 상황과 나의 대처 방식을 이야기해 봅시다.

(상황)

---

---

(대처 방식)

---

---

(지금의 나였다면 따졌을까?)

---

---



★ [162~166쪽] 악한 일을 하고 나서 남들이 알까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선한 일을 하고 나서 남들에게 알려려고 급급한 것을 보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채근담》

Q. 위 구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 내 생각을 담아 해석해 봅시다.

---



---

Q. 나는 악함과 선함 중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인가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



---

Q.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일까요?

---



---

Q. 악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용서해 줘야 할까요?

---



---

Q.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선행이 알려지면 주변 사람들이 선한 일을 따라 하게 되는  
 경우를 가리켜 쓰는 말입니다. 유명 가수와 팬들이 함께 기부하는 문화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위 《채근담》의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



---

★ [167~171쪽]  는 더럽지만  로 변해 가을바람에 이슬을 마시고, 썩은 풀은 빛을 내지 않으나  로 변해 여름달 아래 광채를 발한다. 그러므로  은 항상  에서 나오고,  은 항상  에서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채근담》

Q. 위 구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 내 생각을 담아 해석해 봅시다.

---

---

Q. 이 구절에서 매미와 반딧불을 예로 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매미와 반딧불의 습성과 관련지어 생각해 봅시다.

---

---

Q.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애쓰고, 노력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때의 상황과 기분을 말해봅시다.

---

---

Q.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실패와 좌절을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은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통해서도 성장했다고 생각하나요? 그 안에서 배운 점은 무엇인가요?

(내가 겪은 실패와 좌절)

---

---

(배우고 성장한 점)

---

---

★ [173~177쪽] 도는 공중의 사물이므로 사람마다 이끌어서 다르게 해야 하고,  은 집에서 늘 먹는 음식과 같으므로 마주치는 일마다 경계하며  . 《채근담》

Q. 위 구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 내 생각을 담아 해석해 봅시다.

---

---

Q. 우리는 왜 공부를 하는 걸까요?

---

---

Q. 배움의 본질은 무엇인지 책에서 찾아 정리해 봅시다.

---

---

Q. 율곡 이이의 《격몽요결》에서는 ‘공부함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움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

---

Q. 나는 어떤 배움을 얻어 성장했나요? 1년 전 나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내가 배우고 성장한 부분을 이야기해 봅시다.

(예) 1년 전의 나는 동생에게 나쁜 형이었어요. 동생을 무시하고 가끔은 괴롭히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동생도 나처럼 친구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형으로서 조언을 해 주었어요.

동생도 나와 같은 고민을 한다는 배움을 통해 동생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

---

※178~183쪽을 보고 더 생각해 봅시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디딘 발자국은 언젠가 뒷사람의 길이 될 것이니.

-이양연 또는 서산대사의 시

Q. 위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

Q. 내가 배우고 나아가는 길은 곧 후배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선배가 되고 싶은가요?

---

---

Q. 내가 따르고 싶은 롤모델을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그의 어떤 점을 배우고 싶은지 생각해 봅시다.

(롤모델)

---

---

(배우고 싶은 점)

---

---

---

---

---

---

---

---

---

---

★ [199~204쪽] 음주와 연회를 즐기는 일이 잦은 집은  이 아니고, 화려한 명성을 듣는 습관에 익숙한 선비는  가 아니며, 명예와 지위에 대한 생각이 간절한 사람은  가 아니다.

《채근담》

Q. 위 구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 내 생각을 담아 해석해 봅시다.

Q. 이 구절에서는 호(好)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채근담》에서 말하는 호인가(好人家), 호사자(好士子), 호신공(好臣工)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책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해 봅시다.

호인가(好人家)

호사자(好士子)

호신공(好臣工)

※205~209쪽을 읽고 더 생각해 봅시다.

화려한 것에 대해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화려한 것을 보고는 좋아하는 경우가 있고, 담박한 것에 대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담박한 곳에 가면 싫어하는 경우가 있다. 혼탁함과 담박함의 구분을 모두 없애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없애 버려야 화려한 것을 잇을 수 있고 담박함을 즐길 수 있다.

-《채근담》

Q. 이 구절에서 말하는 화려한 것과 담박한 것은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Q. 화려함과 담박함은 돈, 명예, 지위 혹은 또 다른 좋은 것(好)을 기준으로 나뉘지 않을까요?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인가요?

Q.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옳다고 여겨지는 일인가요?

Q.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나요? 목표를 이룬 사람에게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는 가치를 따라 긍정적으로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목표를 이룬 내 모습을 상상하며 30년 후의 자서전을 써 봅시다.

제목 :

지은이 :

★ [212~216쪽] 에 있어서  어떻게 살았는지 숨기더라도 드러나게 된다. 에 있어서 작은 털만큼이라도  일을 공정하게 하더라도 사사로움이 개입하게 된다. 《채근담》

Q. 위 구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 내 생각을 담아 해석해 봅시다.

---

Q. 나는 참되고 솔직한 사람인가요?

---

Q. '거짓말을 하면 얼굴에 티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솔직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

Q. 세상이 온통 거짓과 이기심으로 가득하더라도 참되고 솔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나요?

---

※217~221쪽을 읽고 더 생각해 봅시다.

서로 약속한 것을 꼭 지켜야 정의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만일 한다고 한 것을 그대로 안 하면 서운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신의를 확수하는 것이 정의를 기르는 데 한 가지 조건이 됩니다. -안창호, <동지들에게 주는 글>

아이에게 무언가 약속하면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아이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탈무드》

Q. 약속은 왜 중요한가요?

---

※다음 기사를 보고 생각해 봅시다.



“포장 주문 후 연락 두절”...  
늘어나는 노쇼 손님에 식당 사장님 골머리  
출처: 조선비즈

Q. 손님들의 노쇼로 인해 식당들은 어떤 피해를 입었나요?

---

Q. 부득이한 사정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참되고 솔직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 것일까요?

---

★ [223~227쪽]  을 가리는 시비의 저울과  을 가리는 이해의 저울이 있다. 여기에는 크게 네 가지 등급이 있다. 가장 높은 등급은  이다. 그다음 등급은  이다. 그다음은  이다. 가장 낮은 등급은  이다. 정약용, <연아에게 답함>

Q. 위 구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 내 생각을 담아 해석해 봅시다.

---



---

Q. 정약용이 말한 가장 높은 등급의 저울은 어떤 형태일지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힌트 : 더 높은 가치를 무겁게 표현해 주세요.)





Q. 정약용의 '두 저울'에 적용할 수 있는 역사적 인물을 찾아봅시다.

옳은 것을 지켜 이로움을 얻은 인물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옳은 것을 지켰으나 해롭게 된 인물			
그릇된 것을 따라 이로움을 얻은 인물			
그릇된 것을 따르다가 해롭게 된 인물			

Q. 우연히 길을 가다가 친구가 불량배들에게 위협당하고 있는 모습을 마주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정약용의 '두 저울'에 비추어 생각해 봅시다.

---



---

Q. 정약용은 옳음과 그름 사이에서는 해로움을 입더라도 옳은 길을 먼저 택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당한 상황 속에서 '방관자'의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옳은 길을 택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



---

Q. 우리 사회에는 옳은 것을 지키며 이로움을 얻는 진정한 '슈퍼 히어로'들이 있습니다. 바로 '용감한 시민상'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들에게 상을 주며 칭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폭행 당하는 할아버지 구하고 '용감한시민상'·포상금 받은 '시민 ...**

2019.10.25. 폭행 사건을 목격하고 자신의 몸을 던져 막아낸 청년이 있어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16일 대전 용전동 한 사거리에서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엑센트 차량이 방황자시동을 켜지 않고 무리해 끼어들다 옆 차선의 스타렉스와 충돌...



**주민센터 흉기난동 범인 제압한 시민 '용감한 시민상' 수상 - 시흥...**

2020.12.10. 시흥시는 지난 8일 대야동주민센터 흉기난동사건에서 범인을 제압하는데 도움을 준 김영석씨(62)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했다. 이날 표창 수여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간소하게 진행됐다. 대야동 마을센터에서 권순선 마을자치과...



**차량화재 현장에서 생명 구한 시민 '용감한 시민상' 수여 - 대전인더...**

2023.01.31. [대전인더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조치원소방서가 지난 30일 전기차 화재현장에서 차량 안에 갇혀 있던 운전자를 구조한 조동신(30)씨 등 시민 5명에게 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했다. 조치원소방서는 지난 30일 전기차 화재 현장에...





# 마치며

<p>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을 골라 따라 적어 봅시다.</p>		<p>쪽수</p>
<p>어떤 점이 마음에 와닿았나요?</p>		
<p>나를 변화시킨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p>		
<p>앞으로의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p>		
<p>이 책을 추천해 주고 싶은 사람과 그 이유를 적어 봅시다.</p>		
<p>책을 읽고 활동을 하며 들었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 봅시다.</p>		